



스위스재보험, 2009년 1분기 순이익 1억 5천만 스위스프랑, 주당순이익 0.45 스위스프랑, 연간자기자본 수익률 2.9% 기록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Korea
Telephone +82 2 397 0308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2009년 5월 7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1분기에 1억 5천만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부문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뛰어난 언더라이팅 실적을 거두었으며 생명보험 부문의 이익은 유리하게 전개된 사망률 추이에 힘입어 성장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인 스테판 리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9년 1분기에 다시 수익을 기록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의 자본기반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위험축소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번 결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스위스재보험 핵심 사업 분야의 수익력은 여전히 견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위스재보험, 1분기에 다시 수익 창출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1분기에 1억 5천만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6억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주당순이익은 0.45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1분기의 연간 자기자본수익률은 2.9%로 2008년 동기에는 8.5%를 기록하였다.

자기자본은 2008년 말에 비해 15%증가한 236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09년 3월 버크셔 해서웨이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스위스재보험 자본에 30억 스위스프랑을 더해 준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금리변동이 주요원인이었던 21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순미실현 투자손실은 14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환차익으로 일부 상쇄되었다.

견실한 언더라이팅에 힘입은 손해보험

손해보험 부문은 10억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과 90.2%라는 우수한 합산비율(할인을 적용전 88.6%)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은 견실한 언더라이팅 실적 및 보험료 수입 증가, 그리고 손해를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2009년 1월의 재보험 계약갱신도 손해보험 부문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몇몇 주요 보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 상승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또한 스위스재보험이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며 상당한 지급능력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고객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명보험 부문, 영업이익 향상

생명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은 2008년 1분기 1천 7백만 스위스프랑에서 2009년 2억 8천만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하였다. 지급률은 2008년 동기대비 91.3%에서 86.9%로 향상되었다. 미국 내의 유리한 사망률 추이뿐만 아니라 향상된 가격도 이번 보고기간의 생명보험 부문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산운영 부문, 위험 축소노력 지속

자산운영 부문은 1.9%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존에 발표한 포트폴리오 위험 축소 계획에 발맞추어, 특정 포지션을 선택적으로 매각하였으며 헤징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고, 단기 보유증권의 비율을 늘리고 위험성이 낮은 자산에 현금유입 부분을 투자하였다. 현금 및 단기증권, 정부보증채권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수익 수준은 줄어들었지만, 자사의 자산을 핵심 (재)보험의 위험 분야에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레저시 부문, 2009년 소폭의 수익창출

레저시 부문은 2009년 1분기 1천 2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 이전의 거래 활동에서 창출된 수익은 구조화 신용디폴트스왑과 관련된 손실로 상쇄되었다.

전략 및 목표

스위스재보험은 탁월한 고객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주주 가치를 창출하며, (재)보험분야에서 견실한 입지와 인적 전문성을 쌓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견실한 자본력 확보 및 현재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스테판 리페는 말했다. "우리는 자본력을 강화하였으며, 자본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및 재보험 분야 모두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위험 축소를 지속하고 있다. 계속해서 레저시팀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축소시켜나갈 것이며, 동시에 시장 상황 개선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높은 등급의 자산은 유지해 나갈 것이다. 비용을 삭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에게 좀 더 집중함으로써 더욱 경쟁적인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장의 변동 폭이 큰 것을 감안, 스위스 재보험은 자사의 재정 목표를 일부 수정했다. 향후 3년 간 기존 주주 자본의 잠재적 희석 위험을 없애는데 필요한 자본 창출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재)보험 가격 면에서 연 14%의 자본이익률 창출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AA 신용등급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목표로 하고,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2010년 말까지 운영비용을 4억 스위스프랑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전망

최고경영자 스테판 리페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맺었다. “ 포트폴리오 자산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재보험 시장에서 늘어나는 수요와 시장의 감소된 담보력으로 인해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이러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견실한 위치에 있다. 지난 2009년 1월의 성공적인 재보험 계약갱신은 고객들에게 스위스재보험만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재)보험 분야에서의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